

목 차

27년도 6월 예열지문

1. 독서

2111 예약

2. 문학

- 1906 작자 미상, 「옹고집전」 (수능특강 연계)
- 2011 (가) 윤동주, 「바람이 불어」, (나) 김기택, 「새」

6월 모의고사 날 아침입니다.

많이 긴장되겠지만,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평소 공부하던 방식과 흐름 그대로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1교시 시험 타종이 울리기 전, 아직 굳어있는 머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예열 지문을 먼저 읽어주세요. 이 지문을 풀고 나서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감각 자체를 시험 직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묵묵히 준비해 온 자신을 믿고, 차분하게 첫 페이지를 넘기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2111 예약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

[A] 하고 대금을 ㉢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에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

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는 그에게도 책임을 ㉤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에 대해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6.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ㄱ	ㄴ	ㄷ
①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대금 지급
②	급식 계약 승낙	없음	급식 제공
③	급식 계약 승낙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④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제공
⑤	없음	식사 제공 계약 체결	급식 대금 지급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 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26. 세부 내용 파악

■ 정답해설

⑥ 5문단에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 ① 2문단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합의가 없어도 계약상의 채권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예약 모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7. 중심 내용 파악

■ 정답해설

③ 2문단에서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약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서 다만 기차에 탑승하는 권리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답해설

- ①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이 급부이다. ② ㉠은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것이므로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에 따라 발생한 채권, 즉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약이다. 2문단에서 ㉠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을 탑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예약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생략된 내용 추론

■ 정답해설

- 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상 급부는 본계약 성립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것(ㄱ)이다. 예약상 급부에 의해 본계약이 체결되면 본계약상 급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급식 제공에 따라 급식 대금을 지급받는 것(ㄷ)이라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상의 급부는 없다(ㄴ)고 볼 수 있다.

29. 구체적 사례 적용

■ 정답해설

- ④ 갑의 손해가 을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을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병 역시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을과 병 모두 손해 배상의 채무는 지지만 병은 갑과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 ① 을은 갑에게 약속한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해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 ② 을이 고의가 있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역시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진다. 다만 5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인 을이나 방해자인 병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지므로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의 채무는 사라진다.
- ③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을이 갑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5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병도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을과 달리 갑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 정답해설

- ② ⑥의 ‘받기’와 ②의 ‘받았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 오답해설

- ① ④의 ‘가진’은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①의 ‘가지는’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③의 ‘생길’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③의 ‘생긴’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었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④의 ‘물을’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④의 ‘물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⑤의 ‘끼치는’은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⑤의 ‘끼쳤다’는 ‘소름이 한꺼번에 돌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1906 고전소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냥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평 논 두 섬지기 이 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A]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낱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흑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중략)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 우리 서

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중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였기로 전곡을 과연 아낄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 쏘냐.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단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결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 한단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중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결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스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앉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히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육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

[B]

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모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왔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선자 :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는 돈.

39.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 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다.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 ④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 ⑤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옹고집’으로 알고 있다.
- ② ㉡ :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③ ㉢ :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 ④ ㉣ : ‘참옹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 ⑤ ㉤ : ‘참옹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④ ‘짚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 ⑤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 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42. <보기>는 「참옹고집」 이본의 일부이다. [B]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참옹고집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명하신 도덕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 하온 후 지하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情狀)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고로 놓아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부적을 써 주며 왈,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 있으리라.”하고 홀연 간 데없거늘 참옹고집 즐겨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나의 어진 용심’을, <보기>는 ‘정상이 불쌍’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용서하는 이의 마음을 고려했고, <보기>에서는 용서받는 이의 처지까지도 고려하였군.
- ②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는 ‘이만해도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가 됨을, <보기>는 ‘너의 처자 가여’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B]에서는 징계의 사회적 효용이, <보기>에서는 징계로 인한 가족의 피해가 고려되었군.
- ③ ‘참옹고집’의 악행으로 [B]는 ‘부모 박대’를, <보기>는 ‘모친’ ‘구박’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참옹고집’의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에 포함되었군.
- ④ ‘참옹고집’에게 개과천선하라는 요청이 [B]와 <보기> 모두 인물의 발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인물의 발화는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에 해당하군.
- ⑤ ‘참옹고집’을 훈계하던 존재가 [B]에서는 ‘허수아비’로 변하고, <보기>에서는 ‘홀연’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B]와 <보기>에서 모두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는군.

■ [39-42]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응고집전'

해제

이 작품은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판소리계 소설로, 욕심 많은 주인공이 자신과 닮은 가짜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뒤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팔시하던 '참옹고집'은 도승이 보낸 '짚옹고집'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옹고집'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난한 이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가져야 할 책무임을 깨닫게 된다. 진짜와 가짜가 송사를 벌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모티프로 삼고 있으며, 도술을 통해 핵심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기적(傳奇的) 성격도 엿보인다.

주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개과천선

39. 화자의 태도 이해

■ 정답해설

③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짚옹고집'은 '참옹고집'보다 앞서 마을 사람들을 아는 척하며 '참옹고집'이 하고 싶은 말들을 먼저 건넌으로써 '참옹고집'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서술자는 '참옹고집'의 입장에서 '날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 짚옹고집같지도 모르는지라.'와같이 표현함으로써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해설

- ① [A]에는 두 옹고집이 송사를 가는 중에 보인 행동이 주로 서술되어있다.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이 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해 송사를 벌인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 ② [A]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누가 알아보리오. 누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와 같은 반응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짚옹고집'이 승소하는 송사의 결과와 관련한 행인들 사이의 상반된 예측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 ④ [A]에서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은 서로 어떠한 말도 건네지 않고 있다.
- ⑤ [A]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모나 외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40. 구절의 의미 파악

■ 정답해설

- ③ ㉠은 '참옹고집'이 집 근처에 왔음을 '짚옹고집'이 능히 알아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후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참옹고집'을 개과시키기 위해 데려올 것을 사환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을 '참옹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해설

- ① ㉠에서 '마누라'는 송사에서 이긴 '짚옹고집'을 '참옹고집'으로 믿고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고 있다.
- ② ㉡에서 '참옹고집'은 '짚옹고집'을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이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있다.
- ④ ㉢에서 '참옹고집'이 마을 뒷산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에서 '참옹고집'은 '갈 마음 전혀 없다.'는 말로 함께 가자는 사환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4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정답해설

- ①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참옹고집'이 아니라 '짚옹고집'이 한 말이다. 또한 '참옹고집'이 스스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잘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오답해설

- ②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는 말을 통해 '짚옹고집'은 '참옹고집'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참옹고집'이 평소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며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 ③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참옹고집'의 재산으로 '짚옹고집'이 선행을 베푸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참옹고집'과 같은 향촌 사회의 부유층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짚옹고집'을 통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짚옹고집'이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걸승들'에게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는 모습에서 '참옹고집'이 쌓아 둔 재물이 많은 향촌사회의 부유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전전걸식'은 '참옹고집'이 겪은 고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참옹고집'의 고달픈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42. 작품의 종합적 이해

■ 정답해설

- ④ [B]와 <보기>에서 ‘참옹고집’으로 하여금 개과천선 할 것을 요청하는 발화가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발화가 ‘참옹고집’이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기>에서는 ‘참옹고집’이 먼저 ‘도사’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있으므로, 개과천선을 요청하는 발화가 용서를 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 ①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이유로 [B]에는 ‘나의 어진 용심’이, <보기>에는 ‘정상이 불쌍하고 너의 처자 가여운’ 상황이 언급되었다. [B]의 ‘어진 용심’은 용서하는 ‘짚옹고집’이 지닌 것이고, <보기>의 ‘정상’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참옹고집’의 처지와 관련된 것이다.
- ② [B]의 ‘짚옹고집’은 ‘후생에게’ ‘징계한 사례’로서 ‘참옹고집’을 살려 두는 것이 사회적 효용이 됨을 밝히고 있고, <보기>의 도사는 ‘참옹고집’ 가족의 가여운 상황을 고려하여 ‘참옹고집’을 용서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③ [B]와 <보기>에는 각각 ‘참옹고집’이 ‘부모 박대’하고,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하는 비인륜적 행위가 징계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 ⑤ [B]의 ‘짚옹고집’이 ‘허수아비 찰벼 짐뭍음’으로 변하는 것이나 <보기>의 도승이 ‘홀연 간데없’어지는 것은 [B]와 <보기> 모두 도술과 같은 신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2011 현대시 세트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

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우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시다.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밀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2011 (가) 윤동주, 「바람이 불어」, (나) 김기택, 「새」

(가) 해제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출발점과 종점을 알 수 없이 흘러가는 ‘바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하는데, 자신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4연에서 ‘시대’를 언급한 것을 통해 이 괴로움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5, 6연에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중에 반석과 언덕 위에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주제: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대한 성찰

(나) 해제

이 작품은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도시적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을 인식하던 새는, 이내 새장 속의 생활에 적응하여 새장 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 않고 닭처럼 걷는다. 이는 비상을 위한 날개의 기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새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비상을 잇는 채 폐쇄되고 억압된 삶에 익숙해진 새의 모습은,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력과 본질을 잃고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한 현대인의 삶에 대한 성찰

43.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④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에서 ‘없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는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생각하고,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과 성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고 떠올린 여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44. 소재의 기능 파악

■ 정답해설

- ② 제시 글에서 ‘바람’을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에서 ‘바람’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바람’의 속성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해설

- ① ㉠에서는 ‘바람’이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바람’의 흔들리는 속성이 화자의 내면을 흔들고, 괴로움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는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과 새장 안의 폐쇄된 공간을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가 새장에 갇힌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아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창살 사이의 바람을 쫓는 새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5.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 정답해설

- ④ <보기>는 ‘새장에 갇힌 새’를 통해 이 작품이 일상 속에서 잠재력과 본질을 잃고 자유의 가치를 잊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찰력 있게 그려 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의 모습은, 일상에만 충실하게 살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은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새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 ①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의 구절을 통해, 창살에 부딪친 후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새의 모습이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의 모습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지는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은, 마치 날지 않아서 날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닭과 유사하다. 이는 새장 안에서의 성실한 생활이 비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는 데 그치고 마는 새의 모습을 통해,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